



김한기 법무사, 전북대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전북대학교 동문 김한기 법무사(행정대학원 석사수료)가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29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 법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김한기 법무사는 2019년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바 있다. 김 법무사는 아들인 김진준 경감은 전북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특채로 경찰에 입관해 경찰로 활동하다 과로로 순직했다. 김한기 법무사는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은전을 받아 그 일부라도 환원하고 싶었다"며 "그리운 아들이 모교에서 그가 펼치려던 꿈을 후배들이 이어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봉동, 카페 작은파도와 협약 체결

남원시 도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8일, 관내 갈치마을 카페 작은파도(대표 이은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동 관계자와 작은파도 카페 대표가 참석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가정 방문 시에 취약계층에 빵을 지원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은서 대표는 "직접 구운 정성 가득 담긴 빵이 취약계층 이웃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져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새마을회, 청정김제 만들기 폐농약병 2차 수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김제시새마을회(회장 백창민)가 지구환경 보호와 흙 살리기 운동 및 청정김제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폐농약병 수거 2차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수거 사업을 위해 김제시새마을회는 오전 7시부터 19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수거한 폐농약병 등을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일괄 집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산내면 자사협에 1등 고품질 냉장고 기부

남원시 산내면 이성근 면장은 8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김세민 주무관이 10월 28일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냉장고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김세민 주무관은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제3회 지리산 도토리골 로컬푸드 축제 현장 지원 중 경품 추첨에서 1등 상품인 냉장고가 당첨 현장에서 산내면 복지사업을 위해 사 용해 달라며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으며, 냉장고는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세민 주무관은 2022년 임용된 후 올 8월 산내면에 전입, 평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활동 모습 을 보여 온 새내기 공무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에 힘 보태며 상생 협력 의지 다져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와 농촌사랑 노·사 한마음 농촌일손돕기 펼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가을철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주천면 고추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29일 노사 합동으로 진행되어, 농촌사랑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위원장, 총무과장을 포함한 노사봉사단 30여 명은 고추 수확과 고추대 제거 작업을 도우며 농가와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을 통해 노사는 한마음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도민과의 신뢰와 유대감을 다졌다. 전북자치도청 노사는 농촌 일손돕기와 연탄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과 협력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봉사에 함께한 농가주 김 모 씨는 "고추 수확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직원들이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농번기에 이루어진 짧은 봉사이지만 농가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연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장 또한 "노사가 함께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린 점이 뜻깊다"며, "그럼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기전대 허브조경과, 메이크-모노스케일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는 29일 본교에서 (주)메이크 및 (주)모노스케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과 자동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마트팜의 선도 기업인 (주)메이크는 센서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생육을 최적화하는 자동화 설비 구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한다. 또 (주)모노스케일은 AI 및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인정받은 기업으로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시제품 개발 및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차세대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제 신 캠퍼스에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 프로젝트에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 RISE 프로젝트에 공동 도전하며, 스마트 농업 교육 및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농업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운서 교수는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메이크의 양철승 대표는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작물 관리 방식을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술의 융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운서 교수는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메이크의 양철승 대표는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작물 관리 방식을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영예'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29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회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유익식 의장은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숙원 해결과 완주군의 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유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익식 의장은 "완주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정책개발을 통해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는 14개 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졌다. /원주=염재복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29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 행사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매어르신을 위한 거점형 치매센터, 산후조리원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균형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부족한 재계 이 상을 주신 것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봉사하려는 의 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 곁에서 소통하고, 완주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는 14개 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졌다. /원주=염재복기자

무주교육지원청, '2024 무주 영작문 특별교실' 운영

무주교육지원청(이강 교육장)은 관내 초, 중학생 34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매주 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글로벌 해외 연수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2024 무주 영작문 특별교실' (무주 영작문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 영작문 특별교실은 무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년간 주관해 온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주관하는 각종 해외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무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영작문 특별교실을 위해 관내 초, 중, 고에서 유능하고 열정적인 네 명의 현직 교사 강사와 첨삭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 주씩 역할 분담을 통해 월요일(중등반)과 수요일(초등반)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강의를 하고, 강의가 없는 날도 매일 패들렛을 활용, 학생들이 올린 한글 일기와 영어 일기를 점검하며 1:1 첨삭지도 중이다. 이강 교육장은 "이번 학교급별 맞춤형 특강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영작문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날마다 영어 일기 첨삭지도를 통해 성장하는 힘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강 교육장은 "이번 학교급별 맞춤형 특강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영작문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날마다 영어 일기 첨삭지도를 통해 성장하는 힘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학생들, 부산 금융단지 탐방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지역기반ICT경영 커플링사업단 참여학생 80여 명이 지난 25~26일 부산 금융단지를 탐방했다. 29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진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견학에서는 한국거래소, 증권박물관, 한국은행, 이케아 등 금융 및 산업 중심지를 방문해 현장 학습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금융과 산업의 역동성과 역할을 체감, 금융 분야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견학을 인솔한 경영대학 김효진 학장(회계세무학과 교수)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분야에 대한 진로 비전을 확립하고, 전북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 회원(52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9일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2024년 무주국가유신축전-무주 문화유산 아행"에서 분식부스 운영과 독거노인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 마경숙 회장은 "회원들 모두 우리 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는 소비자들이 좋은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리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손중열 남원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회장 남원우)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도내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손중열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재임, 적극적인 현장 중심 상임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시민 소통에 앞장 서 왔다. 또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등 문화 관광 분야에 각별한 의정활동을 선보였으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에 예리한 판단과 분석력으로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손중열 의원은 "더 큰 책임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손중열 의원